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3호 [루계 제2246호]

주제 102
(2013). 10
19
토요일
음력 9. 15

6. 15 공동선언의 가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종합생산지령실, 인견천직장, 견본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새로 장비한 방직설비들의 기술적특성,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묵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방직공들이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포성을 크게 올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특히 최근 당에서 새롭게 마련해준 현대적인 방직설비들을 가지고 명주처럼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여러가지 질좋은 인견천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후방사업정형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알아

보시였다.

공장합숙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로 동자들이 먹는 국맛까지 친히 보아주시였으며 어버이 장군님께서 공장합숙을 잘 지어 줄데 대해 간곡히 당부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책임지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훌륭한 합숙을 짓어주셨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합숙부지도 몸소 정해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는 크나큰 응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전초기지나 같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 지난 기간 해놓은 일도 많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으시고 준공준비를 질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비롯한 미림승마구락부의 여

려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진문헌들을 더 넓고 정중히 모시며 사적물전시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심을 주시였다.

승마구락부가 한눈에 안겨오는 인공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시의 의도대로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게 아담한 정각과 천막휴식장을 특색있게 일떠세운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공못주변에 놓은 일도 많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승마구락부운영에 필요한 말 60여필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면서 말들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잘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인진

설자들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미림승마구락부 준공준비를 빙틈없이 잘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문수물놀이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준공식준비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실내물놀이장의 홀에 모신 어버이 장군님의 천연색석고립상을 오래도록 보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마음쓰신 장군님께서 훌륭히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실내물놀이장의 각종 물놀이수조, 한증탕, 샤워실, 편의봉사시설들을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정말 잘 꾸렸다고, 구석구석 흡잡을 헤가 없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수물놀이장의 당구를 하루빨리 준공식을 진행하여 인민들이 찾아와 마음껏 휴식하게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에 위하여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문수물놀이장이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새로 건조한 전투함정들을 보시고 기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조한 전투함정들을 보시고 기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조한 전투함정들의 배수량, 속도, 함정에 장비한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성능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동자들이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사상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깊은 기간에 지능화, 경량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전투함정들을

훌륭히 건조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투함정들의 기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함정들의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조한 전투함정들은 그 어떤 전투정황속에서도 자기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해군의 싸움준비완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력한 수단들이 마련된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로씨야 21세기 관현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리설주동지와 함께 10월 15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 21세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관현악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손님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로외교판계 설정 65돐에 즈음하여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에 온 로씨야 21세기 관현악단은 공연무대에 합창과 관현악 글린작곡 가곡 《루슬란과 류드밀라》를 주제로 한 명곡들을, 너성독창

《로씨야의 하늘을 날며》, 남성독창 《요 귀염동아》, 너성독창과 무용 레가르작곡 경가곡 《쥬지파》 중에서 《쥬지파의 노래》, 혼성2중창 《모스크바》, 무반주합창과 남성독창 《넓고넓은 초원에서》, 합창과 관현악 《갈린까》, 《만발하라 나의 대지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올렸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것을 축하하여 빠벨 오브 쌈니꼬브가 창작한 합창과 관현악 《별들을 향하여 앞으로》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배우들이 우리의 사상감정에 맞게 잘 형상한 우리 나라 노래 《불라는 소원》, 《동지애의 노

래》가 무대에 올라 공연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였다.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0월 15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 21세기 관현악단 성원들, 평양시민들과 함께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조선로동당만세》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서곡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너성중창 《조국찬가》,

경음악과 노래련곡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여》,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 너성6중창 《달려가자 미래로》,

기악과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너성독창 《나의 길》, 경음악

《내 삶이 꽂펴난 곳》, 너성독창과 방창 《조국과 나》, 현악4중주 《10월입니다》, 너성독창 《나래치라 선군조선 천리마여》, 너성5중창 《타오르라 우동 불아》, 관현악과 남성합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너성중창과 합창 《사회주의 기치》, 혼성합창 《위대한 그 이름은 승리의 기치》, 종곡 《조선로동당 만세》의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을 우리 또다시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세차게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연이 끝난 다음 로씨야 21세기 관현악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인 빠벨 오브 쌈니꼬브와 악단의 행정지배인 나탈리야 이와노브나 쎄묘노바를 다시 만나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두 나라 예술인들이 합동공연도 진행하고 교류도 많이 하여 인류의 문화에 술고를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더 많은 루전기재부속품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 희천정밀기계 공장 연료쁨프분기장에서 -

남조선에 기여 들어 조선동해와 남해에서 군사연습에 돌아치던 미핵항공모함전단이 또다시 조선서해에 진입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의 핵항공모함전단은 합동군사연습이 끝나면 귀환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러한 전례를 깨고 조선동해와 남해에 이어 서해를 일주하며 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전단이 조선을 둘러싼 세 면의 바다를 돌아치며 군사훈련을 펼리이어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저 스쳐지날수 없는 일이다.

일명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우는 미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로 말하면 조기정보기를 포함

한 각종 전투기 70여대를 탑재하고 승선인원만 해도 수 천명에 달하며 핵잠수함, 순항미사일, 이지스구축함 등 각종 함선들을 거느린 하나의 거대한 선체타격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 함선집단의 작전반경은

전쟁때에도 미국은 핵항공모함전단을 들이밀었다.

미국은 첨단전쟁을 치르거나 주요분쟁지역,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역들에는 어김없이 핵항공모함전단을 파견하고 하루였다.

21세기에 들어와 감행한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

전쟁때에도 미국은 핵항공모함전단을 들이밀었다.

일반적으로 군사적수단들이 움직이는 데 외연이 군사적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조선서해는 북파 남의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다.

미국은 핵항공모함전단을 들이밀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조선의 바다를 련이어 돌아치

며 전쟁연습을 벌려놓은 것은 19세기 중엽 수많은 군함을 일으키며 위협하고 불평등적인 《일미친조약》을 강요하던 《포함외교》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일본이 바로 이를 서술한 《페리의 일본원정조사》를

능론》이 우선시되던 20세기 아닙니다 21세기 10년대이다.

오늘 공화국은 그 어떤 원수들의 침략도 단체에 처물리칠수 있는 막강한 전쟁력을 갖춘 군사강국으로 위용멸치고 있다.

상대를 잘못 보면 큰 오류를 범할수 있다. 북침핵선제공격을 노리고 조선반도의 동, 서, 남해를 부지런히

되풀이 되는 《포함외교》

1 000km에 달하고 있다. 미국 자체도 이에 대해 웬만한 나라이 군사력을 통가한다고 장담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한 수역에 핵공모함타격집단을 들이밀어 전쟁연습을 벌려놓은 것은 빙공화국압박공세의 일환으로서 정세격화와 전쟁도발의 불씨이다.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조선의 바다를 련이어 돌아치

교본으로 《운양》호사건을 조작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을 당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미국은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 때 동해바다에 수장된 중순양함 《불티모》호에서 교훈을 찾고 핵항공모함집단을 더 늦기 전에 철수시키는것이 좋을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포함외교》가 통하던 19세기 기도 아니고 더우기 《항공모함만

본사기자 주광일

온 나라 인민이 운명을 맡기고 따르는 성스러운 조선로 동당의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 사랑, 인민 사랑에 떠받들려 옥류아동병원과 류정구강 병원, 세계적인 문수물놀이장이 훌륭히 일떠선 소식에 온 나라가 떠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당창건기념일에는 평양 산원에 현대적인 유선종양연구소가 일떠섰었는데 오늘은 『나라의 왕』들을 위해 또다시 아동 병원과 최상의 문화오락시설들이 솟구쳐올랐으니 철세위인의 끝없는 후대 사랑의 은정에 머리가 속어질뿐이다.

그럼수록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공화국의 첫 보건상으로 일했던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 보고듣고 체험한 백두산질세위인들의 후대 사랑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다.

1

후대들을 아끼고 돌보아주는 것은 인간의 본성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본성이이다.

아이들과 함께 동심속에 잠겨보시라. 그러면 그대는 생에 대한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어린것들로 하여 인류의 생활이 더 아름답고 다채로워 진다는 것과 그들의 눈망울에 차넘치는 미소를 지켜주고 꽂펴워주는 것이 얼마나 성스러운 사명인가를 가슴이 부풀도록 깨닫게 된다.

우리 선조들도 『귀한 자식께 키운다』와 같은 속담들로 후대들의 귀중함과 그들을 훌륭히 키워야 할 중요성을 대대로 일려왔다.

후대 사랑은 우리 민족뿐아니라 페부색과 인종, 지역을 막론한 온 세상 인류의 공통의 전통이고 관습이고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아이들이 없는 세계는 태양이 없는 세계』라고 한 명언속에는 후대들에 대한 인류의 사랑이 격조높이 구가되어 있다.

우리 형제는 10명이었는데 나의 아버지(리병남)도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아과의사의 걸을 걷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기본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시기 겪은 가슴아픈 생활체험때문이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온 집안의 기대속에 식구들이 아끌아끌 모아 마련해준 돈으로 서울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였지만 차례진 것은 조수도 아닌 심부름군이었다.

더우기 아버지를 격분케 한 것은 일제의 악랄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이었다.

당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허위의 학연구자료들도 공개하곤 하였는데 그중에는 조선 사람 특히 청

후대사랑이 꽂피는 내 나라가 제일입니다

소년들의 두위계수를 『조사』하고 조선인은 인류학적으로 『혈동인』에 속한다는 철면피한 억지주장을 있었다.

이에 참을수 없었던 아버지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체격지표들과 체능지표들을 연구 분석하여 조선민족의 체질적 우수성을 론증한 론문 『청소년기 조선인체적 및 체능에 관한 연구』를 1940년에 일본의 규수대학에서 당당히 통과시켜 의학박사증을 받았다.

그후 아버지는 여러 친구들의 도움으로 서울시 종로구에 『리병남소아과의원』을 차려놓았다. 그리고는 가난하고 돈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계몽사업도 하면서 제단에는 나라와 민족, 조선의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한다는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였다.

그러나 나라는 없는 석민지인 헤리의 이러한 『우국지심』은 한갓 자체위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에게 참다운 후대관, 진정한 미래관을 새겨주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아버지가 공화국의 첫 보건상이 된지 두해가 가까워오던 주제39(1950)년 이른봄의 어느날이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맥에 찾아온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고 한다.

아이人们对 대한 사랑이 없는 의사는 청진기를 가지고 아이들의 병을 제대로 알수 없지만 아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닌 의사는 청진기 없이도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서 말을 들을수 있다. 나는 어린이들에게 대한 사랑이 이 세상 사랑의 감정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후대들이인 어린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미래를 사랑한다는 것이며 미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오늘을 사랑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모자에게 대한 사랑은 물론 조국과 민족, 혁명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령님의 주옥같은 말씀은 아버지의 심장에 자자구구 새겨졌으며 한생의 좌우명으로 되었다. 돌아쳐보면 후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은 백두산질세위인들의 천품이었다.

페어린 항일의 혈전장에서도 수령님께서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아이들이 먹고 입고 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전투까지도 서슴없이 조직하곤 하였다.

아버지 수령님께서 일본침략군의 수송대를 치고로획한 조선사

과를 아동단원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강반석어머님으로부터 받아 소중히 간직하여 오시던 돈 20원까지 마안산아동단원들의 옷감을 마련하는데 바치신 가슴드거운 이야기는 오늘도 온 나라가 정에 미래사랑의 전설로 널리 전해지고 있다.

후대들은 계급의 꽃이고 민족의 꽃이며 인류의 꽃이다. 이 꽃을 잘 가꾸는 것은 혁명가들의 신성한 임무이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결정된다. 오늘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노력은 수십년 후 대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며 그들이 건설하게 될 조국의 면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조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 후대들을 더 잘 가꾸고 돌보아주자!

이것이 한평생 수령님께서 번 힘없이 간직하여오신 고결한 후대관이였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에서 급한 문제들이 수없이 겹쳐있을 때 북조선령시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어린 학생들이 쓸 연필문제부터 토의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폐허에서도 제일먼저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부터 지어주셨으며 1959년 4월 1일부터 전반적 무로 교육체를 실시하도록 하시여 어린이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공부할수 있게 하여주신 수령님이시였다.

아버지가 비롯한 보건일군들이 간혹 조금이라도 전염병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의 병치료와 생활에 대해 소홀히 할 때에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어린이들을 위해 그 무엇이나 가장 좋은것을 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태이군을 하시였다.

아이들의 출실한 베이였다는 것은 그의 전우들 누구나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미덕중의 미덕으로 간주하여 온 아이들의 베이였고 승이였고 어버이였다.

맑스가 아이들의 출실한 베이였다는 것은 그의 전우들 누구나 출겁에 추억하는 일화로 전해져 왔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의 페락을 위해 기꺼이 『말』이 되고 『승용마차』로도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력사에 기록되고 세

상에 존재한 모든 위인들의 후대사랑을 다 학처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시는 미래사랑의 위대한 헌신에는 결코 미치지 못

더욱 행복하고 씩씩하게 자라며 그들을 이 땅을 더욱 부강번영하게 할 훌륭한 기둥감으로, 인재로 키우는 것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 너무도 뜻밖에 우리 걸을 떠나신 후 처음으로 맞은 지난해 설 명절기간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만경대혁명학원이었다.

환하신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고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울고 웃는 원아들의 빨갛게 상기된 얼굴들을 어루만져주시며 추운 날씨인데 장갑을 끼기 않았는가, 순이 시리지 않은가 다정히 물어주시며 모두를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다심하고 인정깊고 따스하고 예지로우신 원수님의 안광에서 온 나라 인민은 주체36(1947)년 10월 12일 성대히 진행된 학원 개원식에서 부모를 잊고 고생살이 천대속에 떠나는 유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자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던 김일성대원수님의 친어버이 모습을 뵈웠고 원아들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려 수령님의 동상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경대혁명학원에 모실 것을 발기하신 김정숙어머님의 친근한 영상을 다시 봤다.

그리고 펑펑 쏟아지는 흰눈을 다 맞으시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양력설날들에 두차례나 학원을 찾아오시여 이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핵심풀간들이

라고 믿음과 정을 담아 불러주시던 어버이 장군님의 불멸의 자족을 목에 돌이켜보았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백두산질세위인들의 해빛 같은 사랑을 그대로 안고오신 우리 어린이들의 자애로운 친아버지이시이다.

조국수호와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의 머나먼 길과 현지지도의 갈파마다에는 전설같은 후대중시, 미래사랑의 일화들이 수없이 퍽펴나고자

1년 남짓한 기간에 무려 세차례나 찾아가신 서해최전방의 장제도와 무도, 월내도에는 조국의 존토를 억척같이 지켜선 섬방어대군관자녀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이 깊이 새겨져있다.

한국의 위인들은 누구나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미덕중의 미덕으로 간주하여 온 아이들의 베이였고 어버이였다.

원래 인류가 기억하고 있는 동서방의 위인들은 누구나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미덕중의 미덕으로 간주하여 온 아이들의 베이였고 어버이였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의 페락을 위해 기꺼이 『말』이 되고 『승용마차』로도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력사에 기록되고 세

상에 존재한 모든 위인들의 후대사랑을 다 학처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시는 미래사랑의 위대한 헌신에는 결코 미치지 못

한다는것이 이 나라 인민이 실제 힘으로 간직하고있는 진리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 너무도 뜻밖에 우리 걸을 떠나신 후 처음으로 맞은 지난해 설 명절기간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만경대혁명학원이었다.

돌아보시며 이런 유치원과 학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일떠설수 있다고 격조높이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보건상의 직무를 놓은 후 년로한

몸으로 자식들과 헤여 살고있는 아버지의 마음속 그늘도 헤아려보시고 지방에서 일하고있던 나를 평양의 과학연구기관에 소환하여 함께 모여 살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주체62(1973)년 11월의 어느날에는 한 일군에게 우리 집을 찾았던 아버지에게 몸소 약도까지 그려가며 가르쳐주시고 밤이 깊어 일군이 돌아왔을 때에는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리병남선생의 집안은 자신에서도 잘 아신다고, 그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질세위인들의 사랑과 보살핌속에 아버지는 공화국의 첫

최고사령부직속 군의 국장, 조선인민군 중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적십자회 중앙

위원회 위원장, 의학과학원 부원장 등 정부와 군대, 의학부문의 중요위치에서 오래동안 사업하면서

자기의 생을 한껏 빛내일수 있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지 근 10년이 되는 주

제75(1986)년 9월 아버지를 애국렬사로 높이 내세워주시고 애국렬사통에 어머니와 함께 안치하도록 하여주셔서였다.

그리고는 통일혁명가들, 애국인사들과 더불어 조국통일상수상자대렬에도 선참으로 내세워주시는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백두산질세위인들의 사랑과 보살핌속에 아버지는 공화국의 첫

최고사령부직속 군의 국장, 조선인민군 중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적십자회 중앙

위원회 위원장, 의학과학원 부원장 등 정부와 군대, 의학부문의 중요위치에서 오래동안 사업하면서

자기의 생을 한껏 빛내일수 있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지 근 10년이 되는 주

제75(1986)년 9월 아버지를 애국렬사로 높이 내세워주시고 애국렬사통에 어머니와 함께 안치하도록 하여주셔서였다.

아버지가 공화국의 첫 보건상이 된 후 어머니와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내문 깡패들에 의해 누구도 모르는 곳에 랑치되어여있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으신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제일 어린 막내가 몇 살인가 물으시면서 둘째들의 행패에 안해와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하겠는가, 빨리 가족들의 행처를 알아내고 구원하도록 하자시며 몸소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한 일의 너 성 영 응 김정숙어머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주시는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한 일의 너 성 영 응 김정숙어머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주시는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이제 우리 조국은 날이 부강해지고 통성번영할것이며 이

땅에는 아이들의 행복찬가가 소리높이 그리고 자손만대 울려펴질 것이다.

질세의 위인을 세기리를 이어 모시고 사는 인민의 궁지가 하늘땅에 차넘치는 이 조국에서 백두산

질세위인들의 후대 사랑, 미래사랑의 력사는 끝없이 이어질것이며

강성할 조국과 민족의 력일은 더욱 밝고 창창하리라는것을 나는 굳게 확신한다.

리 광 네(리병남의 둘째아들)



훌륭히 일떠선 옥류아동병원

대결정책은 북남관계악화의 근원

북과 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되었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깨어지고 긴장상태가 다시 조성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보수당국의 대결정책 때문입니다.

공화국은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긴장적화를 막고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를 정상궤도우에 올려세우기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남조선보수당국은 이를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결파』니,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누구를 『견인』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대결을 고취하고 북을 심히 자극하였다. 또한 민족공동의 사업인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돈줄』이니 뛰니 하고 중상하고 대화의 막뒤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떠벌이며 미국

지금 남조선에서는 북남관계가 악화의 길로 치닫고 있는 원인이 바로 남조선보수당국의 그릇된 『대북정책』에 있다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현 보수당국의 『대북정책』인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리명박(정부) 와 박근혜(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쌍둥이』라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북이 변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

현 이 어 일 때 서 는 인 민 사 랑 의 창 조 물 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미래사랑
에 떠받들려 평양시에 기념

행 복 의 보 금 자 리

얼마전 은하과학자거리와
체육인아파트가 건설된데
이어 평양의 통홍네거리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
집이 홀륭히 일어서 새집들
이를 하였다.

평양의 웅장화려한 면모
와 잘 어울리게 초교층의
쌍기둥을 이루며 현대적으로
건설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종합
대학 교원, 연구들에게 안
겨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며
나라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비적창조물들이 현이어 일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갖추어져 있을뿐 아니라 1호
동의 14층과 27층에, 2호
동의 17층과 30층에는 장
기와 육아기 등 각종 오
락은 물론 학습도 할수 있
게 실내 휴식터도 특색있게
꾸려져 있다. 궁궐 같은 교

육자살림집이 일여서 1호
동에 2호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
이 부러운것없이 교수사업
과 과학연구사업에 전심전
력하면서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었다.

뜨거운 사랑어린 종합적인 의료봉사 기지들

그런가하면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문수지구에는
류경구강병원과 우류아동병
원이 홀륭히 일어서 개원되
었다.

가장 우월한 공화국의 사
회주의보건체계의 면모를 보
여주며 종합적인 구강치료봉
사기지로 솟아난 류경구강병
원은 나라에서 인민들에게

준비실, 약국, 상점, 어린이
놀이장을 비롯하여 의료봉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
이 충분히 갖추어진 류경구
강병원이 건설됨으로써 인민
들의 요구와 구강의 학발전과
세의 요구에 맞게 의료봉사
수준을 보다 높여나갈수 있
게 되었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삼복의 무더위와
비내리는 웃은 날도 가리지
않으시고 건설현장을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류경
구강병원에는 구강질병의 예
방과 치료를 위한 물질기술
적조건들이 보건의학적요구
에 맞게 충분히 갖추어져 있
다. 구강종합치료기들과 진
단치료실, 구급치료실, 재료

의 뜻을 받들어 아동병원을
건설할것을 말기하고 세상
에 둘도 없는 병원으로 일
히 명명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기쁨넘치는 인민의 문화휴식터

지난 10월 15일 대동강기
슭에 문수물놀이장이 보란듯
이 일떠서 준공되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세
로 건설된 대규모의 종합적
인 물놀이장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문명하고 행
복한 정서생활을 마음껏 누
릴수 있는 인민의 문화휴식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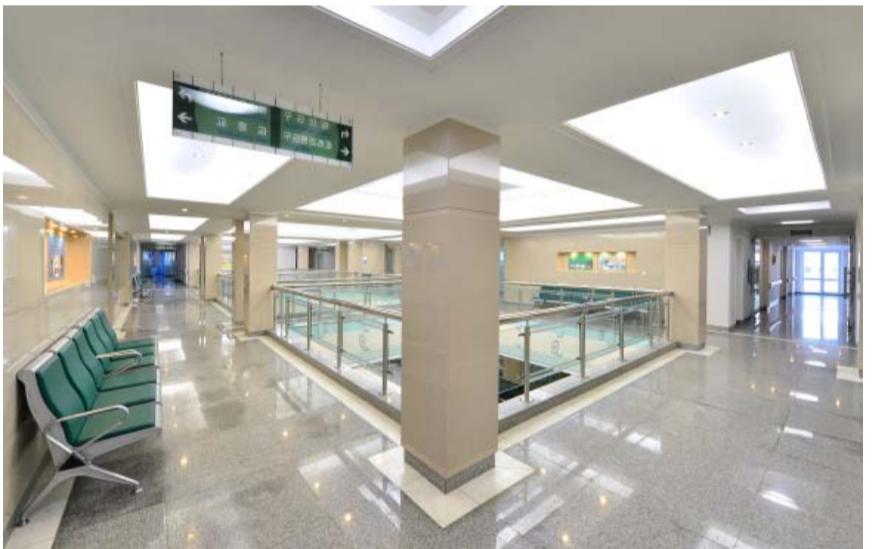
10만 9000m²에 달하는 방
대한 부지에 건설된 문수물
놀이장에는 각종 물미끄럼
대와 수조들로 꾸려진 야외

어주시였으며 병원이름을
《옥류아동병원》으로 친
히 명명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본사기자 박원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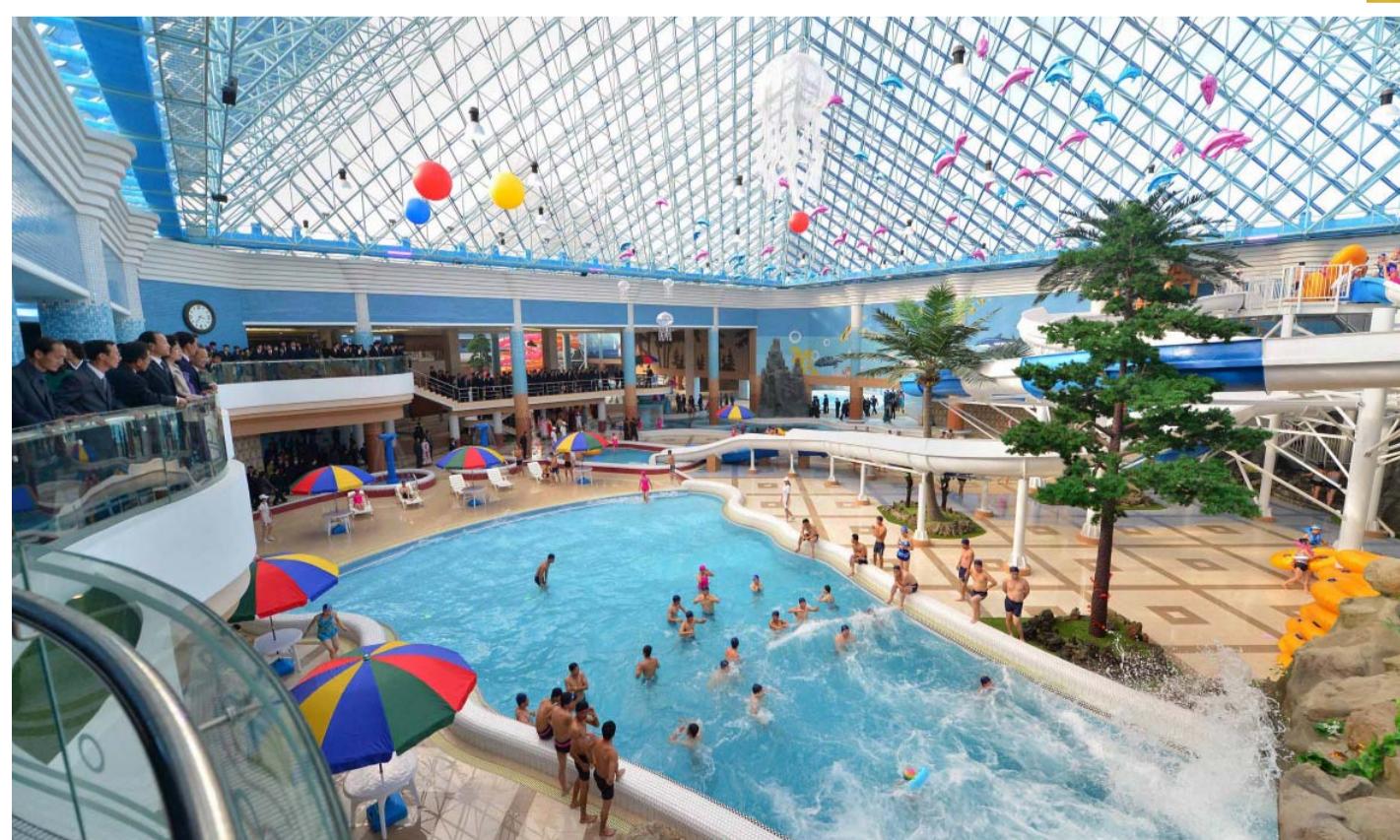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홀륭히 일어서 새집들이 진행



류경구강병원의 내부 (← ↑ →)



옥류아동병원의 내부 (↑ →)



인민의 문화휴식터인 문수물놀이장이 보란듯이 일어서 준공되었다.

10월 18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가 창립된 때로부터 67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기자는 적십자회 일군들을 만났다.

기자: 창립절을 맞는 여러분들을 축하한다. 뜻깊은 이 날을 맞는 심정이 남다르리라고 보는데.

리호림: 정말 그렇다. 돌이켜보면 우리 적십자회가 걸어온 자랑찬 로정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매시기, 매 단계마다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빛나는 영도의 자욱이 어려웠다.

사실 해방직후 우리 나라



의 보건실태는 매우 악후하였다. 병원조차 변변한것이 없었고 질병과 전염병이 만연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4월 대중적인 보건위생 및 구호단체로서 적십자조직을 시급히 내용에 대 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하여 그해 10월 18일에 진행된 북조선립시인민위

자 담 회

공화국적십자회가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더듬어

참 가 자

리호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서기장
김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사회의료봉사부 부장
유주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재난관리부 부장
사회: 본사기자

해왔는가?

김철: 창립후 공화국적십자회는 도, 시, 군들에 하부조직을 내오고 먼저 의사가 없는 지역들에서 무료순회치료를 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을 문화위생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벌였으며 각종 전염병을 없애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적극 벌리였다.

하여 몇해 사이에 공화국적십자회는 많은 회원을 가진 대중적인 보건위생 및 구호단체로 강화발전되었으며 200여개에 달하는 치료기관과 보건위생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적십자회는 미군이 공화국북반부의 평화적주민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비인간적인 세균무기투하만행에



한 전사회적원호사업을 조직하여 수십만명의 웃파이불, 모포, 수천t의 식량을

◆ 『가을에 전어를 구우면 집나간 머느리가 돌아온다』

전어맛의 절정은 11월인데 이 시기에 잡히는 전어는 살이 통통하고 비린내가 적으며 뱀가 무르고 맛이 고소하다. 가을전어맛의 비결은 풍부한 지방에 있다. 전어의 지방함량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가을에는 봄의 3배 속담이 된다.

특히 가을전어는 그 영양가도 높아 『가을전어의 대가리엔 깨가 서말』이라는 속담도 전해지고 있다.

◆ 『가을 배와 고등어는 머느리에게 주지 않는다』

배는 진강에 매우 유익한 과일이다. 고려의 학에서는 배를 변비, 리뇨, 원기회복, 기침, 기관지천식 등에 쓴다고 하였다.

◆ 『배 씹은 것은 딸주고 밤 씹은 것은 머느리준다』

속담도 배의 약효능이 높

기때문에 나온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어는 가을이 되면 살에 지방이 많아지면서 그 맛이 최고로 좋아진다.

동포른 생선인 고등어는 뇌기능을 높여주고 치매, 동맥경화, 뇌졸증, 심근경색 등의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 『공치는 서리가 내려 전하는 가을의 생선맛』

야제맛』

공치맛의 절정기는 서리가 내리는 10~11월이라는 것을 나타낸것이다.

공치는 계절별로 지방함량이 서로 다른데 여름에는 공치 100g당 지방함량이 10g에 불과하지만 11월에는 20g까지 올라간다.

공치는 혈관치료에도 매우 좋다.

◆ 『10월칼지는 대지세 겹살보다 낫고 은빛비늘은 황 소값보다 높다』

본사기자

분배하였으며 각 도에 있는 적십자병원들과 2만 9 000여 개의 위생초소를 통하여 전재민들에게 의료방방조를 주었다.

적십자회는 전시환경에 맞게 전방구호대를 조직하여 환자수송과 아전병원치료사업을 협력하였으며 간호원들과 위생훈련원, 위생방역원들을 양성하여 수많은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구호치료하였다.

그리고 전재고아들을 위한 적십자육아원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소식조사를 하여 전쟁시기 헤어져 생사를 모르고 지내던 수많은 가족, 천척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그들의 재결합을 방조하였다.

특히 1959년 조일적십자회당을 성사시켜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실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기자: 갈라진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에서도 공화국적십자회가 많은 기여를 하였다

유주영: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갈라진 거의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은 적십자회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공화국적십자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폭넓은 북남협상방침에 따라 1972년 8월 평양에서 남조선의 적십자단체들과 첫 접촉을 가진데 이어 여러 차례의 북남적십자회담을 진행하여 마침내 1985년 우리 예술단 및 교향방랑단성원들이 판문점을 넘어서게 되었다.

1984년 9월 남조선의 여러 지역이 큰물괴해를 입었을 때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쌀 5만석, 천 50만m, 세멘트 10만t 등 수많은 구호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고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을 성사시키기 위한 사업을 주동적으로 벌린 결과 리인모동지 비롯한 6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의 리념에 따라 북과 남의 홀어진 가족, 천척들사이의 상봉과 서신교환, 영상편지교환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들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기자: 공화국적십자회는 국제적십자기구(IARC)들과 어떤 협력을 맺고 있는가?

리호림: 공화국적십자회는 창립직후부터 적십자국제위원회(ICRC)와 각국 적

십자사들과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강화해왔다.

1956년 5월 11일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에 가입한 후 공화국적십자회는 큰물과 태풍, 해일,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인도주의 적원칙에서 세계 30여 개 나라들에 구호물자와 자금을 보내주어 자연재해피해자들에 대한 구호활동에 적극 기여하였다.

특히 1995년부터 우리의 여러 지역들이 렌이어들이 다친 전례없는 큰물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고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들도 활발히 벌리였다.

기자: 최근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유주영: 우리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대회에서 채택된 2016년까지의 전략계획에 따라 재난방지 및 환경에 중심을 두고 그에 대처한 사전준비와 대응능력을 높여 각종 재해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자체의 복구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적십자부들, 지

방인민위원회들과의 긴밀한 협력밑에 재난위험지역 확정, 재난에 대처한 자원봉사자양성과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긴급구호 등 여러가지 활동을 벌리는 한편 가능한 범위에서 복구, 개선사업에도 참가하고 있다. 또한 봄철, 가을철 나무심기와 도로안전, 위생선전을 비롯한 청소년적십자자원봉사활동도 활발히 벌리고 있다.

우리는 물로 인한 질병을 줄이기 위한 선전, 상하수도 시설의 시공 및 설치, 하수처리, 종합생수시설시공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강습을 조직하는 등 사회의료봉



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제적십자운동의 근본원칙과 인도주의 사명에 맞게 자의의 임무를 다해나가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3세대항생제 연구원성

— 함흥약학대학에서 —

최근 함흥약학대학에서 3세대항생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완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3세대항생제는 약리작용의 우수성과 안전성, 항균폭의 특이성으로 하여 그 수요도 세계적으로 폭넓게 확장되고 있다. 그들의 연구성과는 약물의 항생작용에 세고 효력을 내는 시간이 긴 3세대항생제를 만들고 쓰고 있다.

3세대항생제를 나라의 제약기업의 실정에 맞게 연구완성하는데 달라붙은 함흥약학대학의 연구집단은 단계별 목표를 높이 세우고 최첨단 돌파전을 과감히 벌리였다. 연구집단은 수백건의 기술문헌을 분석하고 중간합성공정을 세운 다음 수백차례의 실험을 거쳐 마침내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 약전을 펼쳤다.

본사기자

봄의 첨주곡 (7)

글 류 준, 그림 김 윤 일

그렇지만 뇌리속에 진드기처럼 달라붙은 불안감은 쉽사리 가셔지지 않았다.

그 사이에 변용의 얼굴은 점차 굳어지고 있었다. 그 조각같은 얼굴에 떠미감을 덜치려고 혀를 날孱거리는 카멜레온의 흥행한 모습이 겹쳐지고 있었다.

여태 꼭 참고 선배님 대접을 해주었더니 방자해진 것 같았어. 그러지 않아도 당시 같은 사람들때문에 <잃어버린 10년>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가 갈린다구요. 위, 남북화해?... 어림도 없어!』

변옹은 결코 출세욕에 환장한 별레가 아니었다. 반복 대결정신이 풀수에 들어찬자이다. 상대가 누구든지 당국의 정책에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 사정없이 물어매칠 무서운 인간.

문제는 이런 『카멜레온』들이 K연구소나 통일부에 들킬거린다는 것이다. (음...)

그 순간 끔찍한 환영이 눈앞에서 일어났다. 앞에 서았는 변옹이가 갑자기 공통만 큼 큰 카멜레온으로 둑갑하더니 아가리를 짹 벌린다.

그러자 동굴처럼 시꺼먼 그 안에서 새빨간 혀가 슬릿슬릿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혀바닥에서 뚜렷 떨어지는 더러운 느낌!

원림은 숨이 떡 막혔다. 자기의 몸이 통채로 카멜레

온의 끈적끈적한 혀에 빨려 들어가는것 같았다.

어디선가 천둥소리가 울리더니 지진이 일어난듯 땅이 빙글빙글 돌아들었다. 그러다가 가슴속에서 꽂- 하는 오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오또기』가 넘어지는 소리였다.

5

캄캄한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적시는 차거운 비.

비물이 잔동을 타고 시내 물처럼 흐른다. 아마 폐일쯤이면 독감과 걸릴것이다. 그럼 어쨌단 말인가. 모든게 다 귀찮았다.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던 원림은 뭔가 날작하고 미끈한 것을 밟았다.

『어!-』

넘어지지 않으려고 두 팔로 허공을 휘저었지만 그만에 애 영동방아를 찢고 말았다. 발밀을 보았다. 인도불로크에 누군가 무너진 바나나껍질이 불쌍사납게 덩굴고 있었다.

(헛참!)

원림의 눈빛이 굳어졌다. 바나나껍질이 문득 자기의 모습을 련상시켰던 것이다.

제 바나나껍질도 속살이 가득 들어있을 때에는 사람들

의 눈에 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속살이 빠져버린 지금은 버림을 받고 길가에 내버려졌다. 자기신세도 그것

과 다를바 없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끄떡 않고 서있던 『오또기』는 뜻밖에도 넘어서는 전례였다.

혹시 변옹이가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아니다. 그자의 우에는 연구소 소장과 통일부 장관, 『대통령』이 있다. 바로 그들이 집권초기부터 반복대결을 『국시』로 삼고 그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작정 친북세력으로 몰아 탄압하는 『실용정권』의 실체이다. 『실용정권』이 있는 한 남북대화는 고사하고 내

파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실용정권』을 탄압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끔찍한 혐오감을 자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림은 변옹을 면치 못할것이다. 하다면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청정이』만 있으면 그 어떤 『정권』이 출현한다 해도 『오또기』는 끄떡없이 서있을것이라고 생각하다니.

원림은 숨이 떡 막혔다. 자기신세도 그것

과 다를바 없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끄떡 않고 서있던 『오또기』는 뜻밖에도 넘어서는 전례였다.

후회의 파도가 흥벽을 들이쳤다. 아, 신애가 함께 연구소를 뜨자고 했을 때 정신을 차렸더라면, 그 암마의 소굴을 뛰쳐나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것이다.

본사기자

원림은 숨이 떡 막혔다. 자기신세도 그것

과 다를바 없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끄떡 않고 서있던 『오또기』는 뜻밖에도 넘어서는 전례였다.

후회의 파도가 흥벽을 들이쳤다. 아, 신애가 함께 연구소를 뜨자고 했을 때 정신을 차렸더라면, 그 암마의 소굴을 뛰쳐나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것이다.

본사기자

원림은 숨이 떡 막혔다. 자기신세도 그것

과 다를바 없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끄떡 않고 서있던 『오또기』는 뜻밖에도 넘어서는 전례였다.